

5·18 민주광장에 '예술인 행동장' 열립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광주 예술인 30여명
11월까지 매월 셋째주 토요일 행사
16일 시낭송·노래공연 등 열어

매달 셋째주 토요일이면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특별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예술인 행동장'이라 써진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고 약 30여명이 춤, 노래, 퍼포먼스를 펼친다.

지역 예술인 모임 '예술꽃장'(가칭)이다. 세월호 추모를 계기로 모인 이 단체는 지난 5월에는 5·18 정신을 표현하는 등 자유롭게 시대를 예술로써 이야기하고 있다. '예술꽃장'은 지난해 7월 민중미술작가 김화순씨가 무등갤러리에서 연 개인전 '천개의 바람이 불어'를 계기로 탄생했다.

당시 김 작가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작품을 출품했고 소식을 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픈식에 참여해 토크콘서트를 가졌었다.

유가족 아픔에 공감하고 국가에 대해 실망한 예술인들은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색다른 문화행사를 열어보려고 입을 모았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세월호를 이야기하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난장을 펼쳐보자는 의견이었다.

김 작가를 배우 지성남, 조재형(독립영화 감독), 추말숙(문화예술공동체 연나무 대표), 광복인 문화기획자 등 20여명이 주축으로 참여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약 1년간 회의를 거쳐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운영비도 예술인들이 자비로 마련했다.

행사명 '예술인 행동장'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예술인들이 작업실에서 벗어나 광장에서 함께 벌이는 '꼭짜진' 예술인장이 라는 뜻이다. 4월16일 오후 4시16분에 열

린 첫행사 등 오후 4시16분에 시작하거나 4시16분 동안 진행, 4·16과 관련해 행사 시간을 정하고 있다.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인 만큼 따로 운영위원 없이 행사를 같이 만들어 가고 있다. 원래 단체명과 대표도 정하지 않았지만 5·18광장을 사용하기 위해 가칭으로 '예술꽃장'이란 이름을 지었다. '꽃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장을 벌인다'는 의미다.

행사는 민주주의적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 행사마다 참가 예술인을 모집하고 행사가 끝나면 다같이 모여 평가를 한다. 무대에 오르지 않는 예술인들은 스템으로 활동해 행사를 함께 만든다. 총감독도 따로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지정해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추모와 비판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지만 행사 분위기 자체는 무겁지 않다. 오는 16일 열리는 4번째 행사는 오후 4시16분 길놀이로 시작으로 시낭송, 노래공연, 풍물놀이 등으로 꾸며진다. 또 세월호 희생 학생들 이름이 써진 칠판을 들고 사진을 찍는 이벤트나 진도 특산물을 판매하는 팽파르 등을 운영한다.

김화순씨는 '저항' 카페를 운영할 예정이다. '더위와 폭력에 저항하는 아이스아메리카노', '더위와 불의에 저항하는 레몬타' 등 저항음료를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은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화순 작가는 시민들과 함께 그리는 대형 길게 그림을 준비한다. 누구나 참여해 국가 폭력, 세월호 참사에 대해 표현할



매달 열리는 '예술인 행동장' 행사에서 예술인들이 저항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시민들이 세월호 희생 학생 이름이 쓰인 칠판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추모하고 있다. <예술꽃장 제공>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세월호 기억행동 노란 우산 프로젝트'가 함께한다. 시민활동가 서영석씨가 기획한 이 프로젝트는 지난 6월 제주도 성산봉을 시작으로 안산까지

돌며 노란우산 304개를 펼쳐놓고 사진을 찍는 프로그램이다. 누구나 광장에 방문해 펼쳐진 우산 앞에 서면 서영석씨가 사진을 찍어준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D-50 광주서 작품제작·지역 프로그램 확대 광주·전남 현대미술 축제의 장 된다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를 주제로 열리는 2016광주비엔날레 개막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비엔날레는 오는 9월2일부터 11월6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 연계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광주·전남이 현대미술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미술협회 주관으로 광주아트페어와 연계해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이 8월24일~11월6일 문화전당에서 열린다. 또 담양 대담미술관, 해남 행촌미술관 등 광주·전남 사립 갤러리와 문화예술기관 10곳에서도 특별전이 열린다.

각각사 문화관에서는 '2016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 리뷰프로그램' 특별전이 별도로 마련된다. 총 12명이 선정됐으며 본전시회에 참여할 작가 2명을 제외한 10명이 참여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올해 SNS 홍보를 강화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찾기에서 '@광주비엔날레'를 검색한 뒤 친구로 추가하면 일대일 채팅으로 간편하게 입장권 할인 혜택 및 교통정보 등 전시 관람에 대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또 D-50 기념 응원 메시지를 광주비엔날레 페이스북에 남

기면 추첨을 통해 아트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참여작가들도 활발히 광주 리서치 중이다. 뉴욕 출신 타일러 코벤은 오는 29일까지 광주에서 머물며 전시 기간 관람객들이 활용할 벤치를 제작 중이다. 토미 스톡켈은 12일부터 광주에서 한국을 대변하는 이미지인 바위와 돌맹이의 형상에 주목해 이를 재해석한 입체?설치작품을 제작 중이다.

지역 밀착 프로그램 월례회도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대인시장 내 미테우그로 등에서 열린다. 28일 오후 6시 '작가 스كري닝' 프로그램에는 오슬로에서 활동하는 아네 오토 구투 영상작품을 감상한다. 29일 '작품 포커스'(오후 4~6시)에서는 광주출신 김성걸 작가 등이 참여하고 오후 6시30분부터는 '독서모임'이 이어진다. 30일 '광주권기' 무대는 옛 영정호 주변이다.

2016광주비엔날레 시민참여프로그램 '나로! 아티스트: Healing Heart(힐링아트)' 개막식은 오는 8월30일 개최된다. 이날 시민 25개 팀이 약 한 달 간 준비한 전시 결과물을 공개할 예정이다.

9월 1일 개막식에서는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현빈이 참석해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을 예정이다. 문의 062-608-422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서암 권승관 자서전 '기계와 함께 걸어온 외길'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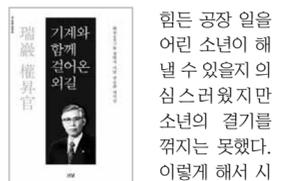
화천그룹 창업자의 기계 인생

"그러나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내가 한번 선택해서 나아가고자 한 길을 좁아터지고 해서 바꾸거나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앞길에 난관이 닥치면 오로지 이겨내고 뚫고 나가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바로 이런 신념이 지금까지 나를 밀반쯤해 준 것이다."

한국 기계공업의 역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화천그룹 창업자 서암 권승관(1916~2004)의 자서전 '기계와 함께 걸어온 외길'(나남)이 출간됐다.

올해는 서암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로, 책은 생전에 냈던 자서전을 증보해 펴낸 것이다. 2004년 사후 화천그룹의 발전상과 그의 뜻을 기려 만든 서암문화재단의 활동상을 부록으로 담아 내실을 기했다.

일제 강점기 가난했던 시절, 10대 소년 권승관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주물공장 견습공으로 들어갔다. 주인은



힘든 공장 일을 어린 소년이 해낼 수 있었는지 심스러웠지만 소년의 결기를 꺾지는 못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기계와의 첫 만남은 서암의 일생을 결정해버린

다. 그는 기본적인 공작기계조차 드물던 시절 선반을 국산화했다. '국내 최초 벨트식 피대선반개발', '국내 최초 NC 선반 개발', '국내 최초 NCTC 개발' 등은 화천을 '공작기계의 메카'로 우뚝 세게 한 성과물이다.

책에는 오늘날의 화천을 이루기까지의 고난과 도전 그리고 외길 기계 인생이 오롯이 담겨 있다. 일평생 한 길을 걸어온 서암의 인생은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향 '라흐마니노프의 추억' 공연

내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금노상 지휘·강충모 협연

광주시립교향악단은 15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정기 공연 '라흐마니노프의 추억'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의 지휘자는 금노상씨다. 제4, 8대 상임지휘자를 역임하며 광주시향과 인연을 맺어왔다. 오랜만에 다시 호흡을 맞추는 광주시향과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 기대된다. 첫 곡은 무소르그스키의 '민둥산의 하룻밤'이 장식한다.

이어지는 무대는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다. 라흐마니노프 만년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곡으로 현란한 색채와 악마적 기교, 번뜩이는 재치와 유머로 가득 차 있다. 협연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을 역임한 피아니스트 강충모씨다.

피날레 곡은 역시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이 장식한다. 라흐마니노프의 예술



금노상 지휘



강충모 협연

적 전성기를 대변하는 곡이다. 티켓 가격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리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회의, 문순태 초청 특강

광주전남작가회의가 매주 목요일 '문화예술작품으로 읽는 미시적 5월의 역사' 강좌를 진행 중인 가운데 14일(오후 6시 30분) 동구 문화사랑방 '오월의 숲'에서 소설가 문순태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한다.

'쓰잘 데 없이 고귀한 것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에서 문 작가는 오월의 정신가치와 그것에 투영돼 있는 오월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작가는 이번 특강에서 왜 5·18을 기억해야 하는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5·18은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를 강연한다. 문의 062-523-783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환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환삼계탕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